

민주당 '박수' 지지 vs 한국당 '야유'

# 이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자당의 지지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야유가 뒤섞인 속에서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전'을 치렀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첫 주자로 나선 이 원내대표는 남색 양복에 짙은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연단에 올랐다.

연설은 국민에 대한 사과로 시작됐다. 그는 "84일간의 공전을 끝내고 미집내 오늘 국회의 문이 완전히 열리고 있다"며 "그러나 너무 늦었고,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과 추경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2019년 상반기, 우리 국회는 국민께 의회 민주주의를 보여드

리지 못했다"며 "국회를 대화와 탐의의 장으로 만들자던 선진화법은 난폭하게 무력화됐고, 민의의 정당은 갈등과 파열을만 증폭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한국당에 돌렸다. 그는 "저와 민주당은 솔직히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다"며 "사회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회는 티협과 상생의 물꼬를 터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본회의장 내 한국당 의석에서는 연설 직후 처음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이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

"국회 늦고 추경·민생 처리 못해 국민께 죄송"

"한국당에 책임 크다" 말하자 한국당서 반발

페스트트랙 언급 때는 "원천무효" 거센 항의

민주는 박수로 응수...한반도 평화 대목 지지

연설 직후 나경원 등 한국당 박수 없이 떠나

체하자는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었다"고 주장할 때에는 한국당의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페스트트랙은 의회주의의 중요한 시험대다. 한국당은 페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 개혁에 함께 하라"는 빌언에는 "페스트트랙이 무슨 의회주의냐" "원천 무효"라는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민주당은 박수로 응수했다.

이 원내대표가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며 한국당을 향해 수용 결단을 촉구하는 대목에서는 민주당이 큰 박수와 함께 이 원내대표 발언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다만 한국당 내에서는 비아냥대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또 이 원내대표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과 공존의 길을 언급하며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을 통한 수사가 정말 능시였는지 저를 반문한다"고 하자 한국당 일부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짜증 기도 했다.

경제 관련 연설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국당의 공세가 거셌다.

이 원내대표가 "야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해 실정과 파국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무슨 소리야" "멍해가고 있어, 경제가"라며 질타를 퍼부었다.

제로페이 도입을 통한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과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계약 간이기간 연장 등 정부가 실행한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언급할 때에도 한국당은 "했는데 (경제가) 왜 그러나?" "힘들어 힘들어" 등의 이유를 보냈다.

40여분간의 연설이 끝나자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이 원내대표에게 훤히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연설 내내 다른 의원들과 대화를 나눈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들은 박수 없이 곧바로 자리에 떠났다.

이 원내대표는 밝은 표정으로 연단에서 내려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원내대표 주위에 둘러어서 "제일 잘했다" "확실하게 박수쳤다"며 다시 한 번 격려의 인사를 건넸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 앞서 사과문을 발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 정부 "北목선, 軍 경계태세 문제"

### 확인...축소·은폐 의혹은 없어"

정경두 "경계작전 실패 용납할 수 없는 중대 과오"

정부가 북한 소형 목선의 동해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의 경계근무태세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축소·은폐 의혹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각종 레이디에 북한 소형목선과 관련한 표적이 됐지 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해 삼척항에 도달할 때까지 57시간 동안 전혀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계획과 사용전력의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해안경계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다"며 "주간·기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최대 징점이었던 '허위보고·은폐 의혹'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허위보고·은폐 의혹의 발단이 된 지난달 17일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 국무1차장은 "초기 상황 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 보안상

## 야당, 이인영 연설에 쓴소리..."오로지 야당 탓, 말잔치뿐"

### 평화·정의 "공존? 선거제 개혁 의지 보여야"

야당은 3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일제히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의당 비위 및 주기, 북한 눈치보기, 경제 책임 회피 일관 이었다"라고 혹평했다.

그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라는 국민 60%의 목소리보다 제 밥그릇 챙겨달라는 정의당의 생떼가 우선인 듯하다"며 "미북, 남북의 관계 개선은 한국당도 진심으로 바라는 바지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수

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원내대표는 북핵 문제에 대해 선 일언반구도 없이 맹목적 평화에 찬물을 앞세워 한국당을 평화 반대 세력인 듯 몰아붙였다"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더욱이 이 원내대표는 경제 침시에 대한 책임 있는 반성과 현실적 대안 제시는 없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경제침시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며 "오로지 야당 탓 주경 탓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 "공존의 정치로 나아가는 종론에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며 상시 국회 체제와 국민소통제 도입 역시 검토 해볼만한 제안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야당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하고 실정과 파국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엔 유감을 표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등 의 실책들이 빚어낸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과장' 이 아니라 '현실'이다. 대처 방안도 공감을 주기엔 어렵다"며 "민주당 입장에선 추경안 처리가 급한 문제겠지만 경제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경제회복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